



# 하루의 선물

현대중 3-5 서수민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온통 선물로만 가득 찬 게 아닐까

엘리베이터에서 내게 먼저 인사 건네는 옆집 이웃도  
결석했던 나를 위해 자기 노트 필기를 보여주는 내 친구도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까지 달려와 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들도

별다른 건 하지 않았지만  
그저 오늘 하루 날 들뜨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 조그만 것들에 감사한 마음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하루

겉보기엔 그저 그래 보이는 포장 속에  
서로를 위한 마음은 절대 그저 그렇지 않아서  
묶여있던 리본이 스르르 풀리면  
열린 상자 속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마음들이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울 거야